

논란의 '성+인물'... "유튜브와 뭐가 다르냐고요?"

넷플릭스, 다루지 않은 소재 첫 미드폼 프로그램
 日 AV배우·성산업 미화 의혹 지적 쏟아져 나와

넷플릭스에서 만든 19금 예능물은 웬지 다를 것만 같았다. '성+인물: 일본편'은 그동안 넷플릭스에서 다루지 않은 소재라며, 첫 미드폼 프로그램이라고 홍보해 기대가 쏠릴 수밖에 없었다.

MC 신동엽·성시경은 여러 예능물에서 성적인 코드와 개그의 선을 적절히 넘나든 만큼, 넷플릭스와 어떤 시너지 효과를 낼지도 궁금했다. 지난달 25일 공개 후 일본 AV(Adult Video) 배우와 성 산업을 미화한 면이 없지 않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여러 논란을 차치하고 단순히 예능물로만 봤을 때도 썩 새롭지는 않았다. 이미 유튜브와 케이 블채널에서 다룬 콘텐츠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정호민 PD는 성(性)과 관련해 화두를 던지고 싶었다고 했지만, 의미와 재미 모두 잡지 못한 듯 보였다.

"말씀해준대로 '익숙하다'는 분들도 있다. 유튜브에 이미 있는 내용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그렇다. 사실 개인 채널을 만들어서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는 세상이지만, 어떤 맥락으로 깨어서 보여줄 수 있는지는 또 다른 문제다. AV 이야기만 하는 유튜브처럼 만들고 싶은 생각은 없었고, AV배우 일도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싶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 왜 이 일을 하게 됐는지, 가족, 친구들의 반응은 어땠고, 수입은 어느 정도이고 생계 이어갈 수 있는지, 성취감과 꿈이 있는지 등이다. 이런 부분을 유튜브에서 말해준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직업에 귀천이 없다'고 하지만, 편견을 가지는 게 아니라 최대한 가치 판단을 유보하고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었다."

성+인물은 신동엽과 성시경이 미지의 세계였던 성과 성인 문화 산업 속 인물을 탐구하는 토너 브라이어티쇼다. 두 사람은 정 PD와 JTBC 예능물 '마녀사냥'(2013~2015)에 이어 호흡을 맞췄다. 총 6부작으로 일본 성인용품점과 성인 VR방, AV 남녀배우, 자위기구 회사 '텐가', 호스트, 일본 2030세대 연애·섹스·사랑 등을 다뤘다. 3일 기준 국내 넷플릭스 3위에 오른 상태다. 무엇보다 AV

배우와 성인물 관련 '성 착취 산업'이라는 부정적 시선이 많은데, 제작진의 진지한 접근이 부족했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정 PD는 "AV에만 너무 초점이 맞춰져 부정적인 생각으로 이어진 게 아쉽다"며 "사회적으로 성이 자신의 정체성을 규정하는데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고 털어놨다. 각종 문화를 보면 다양한 좌표가 있어서 우리는 어떤 위치에 있는지 생각해봤으면 했다. AV는 착취라고만 얘기하는데, 오히려 합법화한 나라가 메이저다. 우리나라는 AV를 만드는 게 불법이지만, AV를 만드는 나라 속 사람들의 이야기도 듣고 싶었다"며 "특히 AV 남자 배우를 꼭 섭외하고 싶었다. 'AV가 반드시 남자만의 것인가'에 관한 이야기를 던지고, 주제를 환기시키고 싶었다"고 강조했다.

물론 정 PD는 '아예 AV를 아예 다루지 말까?'라는 고민도 했다. "일본이 '혐의점의 나라'라고 불리지 않느냐. 현지 편의점 산업 규모가 1조원대인데, AV 산업도 이에 맞먹는다고 하더라. 피하는 건 옳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예능 프로그램에서 인터뷰식으로 구성할 때 '무엇을 중점적으로 가져갈까?' 고민했을 때 결국 태도였다. 이 사람들을 미리 재단하지 않고, 대중들이 무겁지 않게 정보를 가져갈 수 있도록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이 정도 산업 중 암이 없는 부분은 없다. 여배우 편에서 'AV는 사실 판타지'라고 얘기했다. 업계 배우가 하고 싶어하는 이야기는 아닐 것"이라며 "남배우 편에 '이들한테 이 직업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다' 등의 이야기도 털어놓지 않았느냐. (성산업의) 암을 아예 배제하고 명만 조망했다고 하면 제작진은 서운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성산업 관련 부정적인 시선을 언급하지 않은 이유도 밝혔다. "처음 시도하는 예능에서 왜 그 부분까지 충분히 다루지 않았냐고 하는데, 동의하기 쉽지 않다"며 "같은 기준으로 볼 때 여행 예능물에서 그 산업의 문제점이 있는데, 왜 다루지 않았냐고 물으면 충분히 동의를 받을 수 있는 비판자가 있다"고



질었다. "이런 논의를 하는 자체는 중요하고 필요하다"며 "예능 뿐만 아니라 시사, 교양, 보도 프로그램 등에서 시청자 니즈를 해결할 만큼 성에 관해 충분히 다루지 않아서 이런 이야기가 쏟아져 나온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MC 신동엽과 성시경에게도 불뚱이 튀었다. 일부 네티즌들은 선을 넘었다며 신동엽이 SBS TV '동물농장', tvN '놀라운 토요일' 등에서 하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PD는 "동물농장 하차 이야기가 나올지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며 "신동엽씨에게 너무 죄송한 마음"이라고 전했다. "프로그램 전체를 봤다면 MC들이 야한 이야기를 한다는 정도로 이해하지 않을 것"이라며 "10년 전 마녀사냥할 때 TV에서 미혼의 성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어려웠지만, 두 MC 입으로 풀어내는 자체가 의미 있었다. 성+인물도 MC들이 농담을 하러 간 자리이기 보다, 인터뷰어로서 타 문화 속 사람들의 이야기를 끌어내는 역할을 했다. 그런 걸 잘해서 MC를 부탁했고, 두 분도 동의했다"고 강조했다.

"시청자 비난이 굉장히 많았다"는 것도 동의하기 어렵다. "그렇게 반응하는 사람도 있다" 정도다. 시간이 지나면서 반응이 또 달라지고 있다고 느꼈다. 넷플릭스 특성상 전 회차를 한번에 공개해 초반 회차(AV배우 편)에 반응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 넷플릭스 순위가 오르면서 더 많은 분들이 보더라, 끝까지

지 불수록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자 했고, 어떤 맥락으로 방송을 구성했는지 이해·동의할 수 있겠다고 해주는 분들이 더 많았다."

성+인물은 대만편 촬영을 마친 상태다. 대만편에선 성소수자(LGBT)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우리나라에선 LGBT 혼인이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지 않느냐"면서 "대만은 동성 혼인이 합법화 돼 있다고, 이들은 출산 고민도 한다. 대만에서 아이를 갖는 건 안 되지만, 다른 나라에서 출산하는 건 허용한다. 성소수자를 다룰 때 '다 이럴거야'라고 전제하면, 본질은 다 사라질 것"이라고 경계했다. 나라별로 나눠 선보이고 있는데, 애초 한국 편도 염두에 두고 시리즈를 기획한 것은 아닐까. 국내에선 AV산업이 불법인 만큼, 일본 편보다 후폭풍이 더 세지 않을까 싶다.

"처음에 한국편을 고려하지는 않았다. 다른 나라 문화를 보면 한국의 위치를 저절로 알 수 있을 것 같았다. 성+인물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모르겠지만, 어느 날 '만나라 이웃나라' 한국편이 나왔듯이 가능성도 있다. 성+인물 공개 전 '남녀·세대별로 생각이 다를까?' 정도로만 예상했는데, 정말 다양하더라. 성별, 나이에 관한 것도 아니고, 결국 성을 대하는 '나의 태도가 완고한가, 조금 열린 태도로 바라보느냐'의 문제였다. 한국인의 성에 관한 인식은 '생각보다 더 다양하구나'라고 느끼는 계기가 됐다."



'스캇 앙상블'...카리나 네블라, 첫 정규 '굿 매치'

재즈 디바 4명이 원팀이 된 중창 그룹 '카리나 네블라(Carina Nebula)'가 첫 정규 앨범 '굿 매치(Good Match)'를 발표했다. 소속사 JNH 뮤직이 3일 밝혔다.

카리나 네블라는 '스캇의 여왕' 말로를 중심으로 박라온, 강윤미, 김민희 등 보컬 4명의 기투합했다. 그동안 대중음악계에 많은 보컬 그룹이 있었으나, 재즈 디바 4명이 뭉친 건 이례적이다.

앨범엔 12곡이 실렸다. 특히 재즈 보컬의 꽃으로 통하는 스캇(이미 없는 음절로 즉흥적으로 노래하는 것) 곡들을 전면으로 포진시켰다.

앨범의 문을 여는 타이틀곡 '굿 매치(Good Match)'는 카리나 네블라의 음악적 위용을 유감없이 보여준다. 빠른 스윙 리듬 위로 스캇 앙상블이 속사포처럼 터져 나오며 미증유의 쾌감을 선사한다.

JNH뮤직은 "멤버들의 스캇과 연주자의 격정적 대화가 이어지며 3분40초를 쉴 새 없이 달려간다. 비밥 라인의 스캇으로만 된 곡은 한국 대중음악사에서 그 전례가 별로 없다"고 소개했다.

또 다른 스캇 곡 '카리나스 튠(Carina's Tune)'은 라틴 리듬의 서정적 선율이 인상적이다. 같이 목소리를 합치고 이어야만 하나의 노래가 완성되는 구조의 곡이다. 카리나 네블라가 '내가 아닌 우리'로 존재해야 하는 이유를 음악적으로 담아냈다.

앨범의 더블 타이틀곡인 '수지 큐(Susie Q)'는 미국 록밴드 'C.C.R.'의 유명 록 넘버를 흥겨운 재즈 보컬 앙상블 곡으로 바꾼 것이다. 신비로운 느낌의 아카펠라 인트로가 끝나자마자, 어깨를 들쭉여가는데 리듬 속으로 노래가 달려가는 반전이 극적이다.

1930년대 신민요였던 '노들강변'과 1970년대 가수 남진의 빅히트곡 '넙과 함께'는 긴 시간 거리를 뛰어넘어 동시대의 음악으로 다시 태어났다.

'노들강변'은 세월의 무상함을 세마치 장단에 담은 유물 같은 곡이었다. 현대적 화성에 16비트 이븐(even) 리듬과 라틴 리듬을 섞어 풍류와 여유가 넘치는 감각적 곡으로 바뀌었다. '넙과 함께'는 경쾌한 댄스곡에서 침잠하는 서정적 곡으로 분위기가 180도 바뀌었다. "저 푸른 초원 위의 그림 같은 집"이 발산하는 즐거움의 공간에서 아련하고 먼 동경의 공간으로 이동했다고 JNH뮤직은 전했다.

'세이브 유어 러브 포 미(Save Your Love for Me)'는 사랑의 애절함이 아름답게 느껴지는 블루지한 발라드다. 가스펠과 블루스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오르간의 원순 보이싱을 보컬 4명의 하모니로 표현했다.

노래의 언어적 장벽을 낮추기 위해 한국어 개사한 곡들도 있다. '도라리스'는 브라질 '보사노바의 거장' 후안 질베르토(Joao Gilberto)의 '도라리체(Doralice)', '음악으로 돌아가게'는 미국의 작곡가 겸 음악교육가인 커비 쇼(Kirby Shaw)의 '아이 리턴 투 뮤직(Return to Music)'을 개사했다.

JNH뮤직은 "두 곡 모두 화려한 음악적 기교 대신 '노래하는 본연의 즐거움'에 초점을 맞춰 편곡했다. '음악으로 돌아가게'는 막막한 삶의 불안 속에서도 '음악이 곧 구원'이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어, 마치 카리나 네블라가 스스로를 위로하는 듯한 노래로 들린다"고 설명했다.

앨범의 마지막은 김소월 시로 유명한 '엄마야 누나야를 아카펠라로 장식했다. 카리나 네블라의 애잔하면서도 고즈넉한 목소리가 소월의 깊은 시정(詩情)을 여운으로 옮겨준다.

카리나 네블라의 가장 격인 말로는 지금까지 8장의 앨범을 발표했다.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활동해온 박라온은 3장의 솔로 앨범을 발표하고 현재 재즈 트리오 '오늘의 리더로 활약 중이다. 클래식 피아니스트에서 재즈 보컬로 전향한 특별한 이력의 강윤미 역시 지금까지 2장의 솔로 앨범을 발표하고, 현재 재즈 듀오 '유월의 인사' 멤버로 활동하며 음악적 반경을 넓혀가고 있다. 팀의 막내 김민희는 현재 한국 재즈 신(scene)에서 가장 핫한 '골든 스윙 밴드'의 보컬로 주목받고 있으며, 솔로 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윤박 결혼...예비신부 6세연하 모델 김수빈

배우 윤박(36)이 결혼한다. 윤박은 9월2일 서울 모처에서 결혼식을 올린다. 예비신부는 6세 연하 모델 김수빈(30)이다.

소속사 H&엔터테인먼트는 "두 사람은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부부의 연을 맺는다"며 "예식은 양가 가족과 지인을 모시고 진행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이날 윤박은 인스타그램에 손편지를 공개했다. "올 가을 사랑하는 연인과 평생을 함께 할 것을 약속했다"며 "함께 하는 시간 동안 나에게 많은 사랑·믿음을 줬다. 좋은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축복해달라. 배우로서 앞으로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썼다.

윤박은 2012년 시트콤 '할 수 있는 자가 구하라'로 데뷔했다. 드라마 '굿닥터'(2013) '여왕의 꽃'(2015) '청춘시대'(2016) '사랑은 뷰티풀 인생은 원더풀'(2019~2020) '기상청 사람들'(2022) 등에 출연했다. 29일 오후 8시50분 첫 방송하는 tvN 월화극 '이로운 사기'에서 '이로운'(전우희) 보호관찰관 '고요한'을 연기할 예정이다.

김수빈은 2012년 '슈퍼모델 선발대회' 출신이다. YG케이플러스 소속이며, 여러 브랜드 패션쇼 무대에 섰다.

뉴스스

귀여운 건 통한다...애니 '슈퍼 마리오' 100만명 ↑

개봉 8일만에 누적 100만명 넘어

할리우드 애니메이션 영화 '슈퍼 마리오 브라더스'가 100만 관객을 돌파했다. 개봉 8일만이다.

유니버설픽처스와 영화진흥위원회에 따르면, '슈퍼 마리오 브라더스'는 3일 오전 누적 100만명을 넘어섰다. 전일까지 누적 관객수는 99만명이었다. 올해 국내 개봉 영화 중 100만명 이상 본 작품은 '슈퍼 마리오 브라더스' 포함 모두 6편이 됐다. '스즈메의 문단속'(516만명) '더 퍼스트 슬램덩크'(459만명) '교섭'(172만명) '존 워 4'(168만명) '엔트렌과 와스프:퀵탐매니아'(155만명) 등이다.

'슈퍼 마리오 브라더스'는 일본 닌텐도가 1985년부터 내놓은 비디오 게임 '슈퍼 마리오' 시리즈를 영화화했다. 미국 애니메이션 스튜디오 일루미네이션이 닌텐도와 합작했으며, 애런 호바스·마이클 제레니키 연출했다. 영화는 뉴욕의 배관공 형제 마리오와 루이지가 배



수관 고장으로 위기에 빠진 도시를 구하려다가 미스터리한 초록색 파이프 안으로 빨려들어가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다.

'어벤져스' 시리즈의 스타로드로 잘 알려진 배우 크리스 프랫이 마리오를, 찰리 데이와 마리오의 동생 루이지 목소리 연기를 맡았다. 안아 테일러조이는 피치 공주 목소리를 연기했다. 이와 함께 잭 블랙, 세스 로건 등 할리우드

스타들이 대거 참여했다.

'슈퍼 마리오 브라더스'는 국내 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폭발적인 흥행세를 보이고 있다. 미국에선 지난 5일 공개된 이 작품은 전 세계 누적 매출액 10억4580만 달러(약 1조4000억원)를 기록 중이다. 올해 개봉한 모든 작품을 통틀어 매출 10억 달러를 넘긴 건 '슈퍼 마리오 브라더스'가 유일하다.

뉴진스 '디토', 日 오리콘 1억 스밍...해외 아티스트 최단 기간



신드롬 걸그룹 '뉴진스(NewJeans)'가 일본

오리콘 차트에서 해외 여성 아티스트로는 가장 빠른 속도로 단일곡 1억 스트리밍을 달성했다.

3일 오리콘이 발표한 주간 스트리밍 랭킹(5월 8일 자/집계 기간 4월 24~30일)에 따르면 뉴진스가 지난 1월 발매한 싱글 'OMG' 수록곡 '디토(Ditto)'가 누적 재생 수 1억 회를 돌파했다. 지난해 12월19일 공개된 지 19주 만이다.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는 "이는 오리콘 차트에서 1억 회 넘게 스트리밍된 해외 여성 아티

스트의 곡 가운데 최단 기간 신기록이다. 해외 남녀 아티스트 통틀어서는 역대 4위"라고 전했다.

앞서 뉴진스는 '디토'가 실린 'OMG'로 오리콘 주간 합산 싱글 랭킹에서 두 차례(1월16일자·3월 13일 자) 정상을 차지하며 일본 현지 내 뜨거운 관심을 입증했다.

이러한 인기에 힘입어 뉴진스는 오는 8월 일본 최대 규모의 음악 페스티벌인 '서머소닉(SUMMER SONIC) 2023'에 출연한다.